

전북·울산 '올해 K리그1 우승후보'

하나은행 K리그
개막 미디어데이

광주FC·FC서울 경쟁 예상
구단 감독들, 시즌 상위권
3~4팀 제외 막상막하 전망



전북 현대 단 페르레스쿠 감독·김진수(사진 오른쪽)가 2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을 앞두고 리그 2연패에 빛나는 울산HD와 역대 최다인 9회 우승을 거둔 전북현대가 전동의 평가답게 올해 우승 후보로 지목됐다. 광주FC와 FC서울이 이들을 위협할 팀으로 거론됐다.

12개 구단 감독들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2024 K리그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올해 우승 후보가 될 만한 팀들을 예상했다.

지난해 리그 2연패를 달성한 울산HD를 비롯해 있던 선수 영입으로 전력을 강화한 전북현대, 지난해 돌풍을 일으키며 리그 3위에 올랐던 광주FC, 포항스틸러스에서 김기동 감독을 데려온 FC서울 등이 경계 대상으로 지목됐다.

김은중 수원FC 감독은 "우승권인 울산HD와 FC서울, 전북현대를 빼고는 나머지 팀들은 다 비슷할 것 같다"며 "준비와 그날 컨디션에 따라 나머지 팀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김학범 제주유나이티드 감독은 "광주와 전북, 울산, 서울이 4강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나머지 8팀은

그날 컨셉트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민성 대전하나시티즌 감독은 "울산, 전북, 그리고 광주 정도가 우승을 다툴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막상막하"라고 짚었다.

김기동 FC서울 감독은 "K리그를 주도하는 전북과 울산에 계속 강팀으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서울을 그 안에 넣고 싶다"며 "세 팀은 강팀으로 넣고

싶고 나머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조성환 인천유나이티드 감독은 "전북이나 울산이 주목 받을 것 같고 거기에 FC서울이 초반 흐름을 잘 탄다면 경쟁 구도를 만들 것 같다"며 "나머지 팀들은 그날 컨디션이든지 준비나 부상 이벤트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 페르레스쿠 전북현대 감독은 "울

산, 전북, 광주에 추가로 대전과 서울을 더해서 6개팀이 상위 스플릿에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태하 포항스틸러스 감독은 "스쿼드가 탄탄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팀이 성적을 내야 앞으로 축구가 발전할 것"이라며 "전북과 울산, 서울을 3강으로 보고 싶다. 포항은 6강에 들어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망했다.

한화 이글스가 시즌 첫 경기부터 류현진(37)을 내세운다. 초반 기세를 고만하던 한화에 이보다 더 좋은 카드는 없다. 최원호 한화 감독은 지난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류현진이 시즌 개막전에 맞춰서 준비한다"고 말했다.

'개막 후 30경기 중요'

한화, 프로야구 시즌 첫 경기부터 류현진 선발

한화 이글스가 시즌 첫 경기부터 '에이스' 류현진(37)을 내세운다. 초반 기세를 고만하던 한화에 이보다 더 좋은 카드는 없다. 최원호 한화 감독은 지난 2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류현진이 시즌 개막전에 맞춰서 준비한다"고 말했다.

한화는 다음달 23일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와 시즌 개막전을 갖는다. 지난 22일 한화와 계약한 류현진은 이튿날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 합류했다. 개인 운동을 착실히 해온 덕에 개막전 등판에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 감독은 "류현진은 실내이긴 했지만 투구를 계속 해왔더라"며 "개막전에 맞춰 준비하면서 (투구 후) 회복 상태 등을 봐야 한다. 문제가 없다면 개막전에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지켜본 류현진의 불펜 피칭에 대해서는 "가볍게 던졌는데도 공이 괜찮았다"고 평했다.

시즌을 여는 개막전은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최 감독은 류현진이 합류하기 전부터 새 시즌 출발에 주목하고 있었다. "초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막 후 30경기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는 만년 하위권에 머물던 팀이다. 초반부터 처진다면 또 다시 무기력한 분위기가 팀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류현진이 지난 2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고진다 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 2차 스프링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이글스 제공)

최근 몇 년간 한화는 개막 첫 달부터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막 한 달간 10위를 기록한 것만 3차례다. 2022년엔 9위로 출발했지만 결국 그해 10위로 시즌을 마쳤다.

류현진이라는 든든한 투수가 합세한 만큼 올해는 다른 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체적으로 팀 전력이 크게 업그레이드된 것 말할 것도 없다. 류현진이 1선발을 제치면서 마운드 무게감도 크게 올라갔다. 최 감독은 "우리가 당초 정해 놓은 선발 순서가 류현진이 들어오면서 한 칸씩 밀리게 된다"며 "출발부터 달라진다고 봐야 한다"고 기대했다.

한화는 최근 3년 연속 개막전에서 패했다. 류현진을 앞세워 4년만의 개막전 승리 사냥을 노린다. /뉴시스

축구 국대 임시감독 선임되나?... 축구협회 강화위, 3차 회의

오늘 비공개 진행 후 결과 도출 시 브리핑 통해 공개 예정

2차 회의서 3월 A매치 이후 정식 감독 선임으로 방향 잡아

한국 축구대표팀 새 사령탑을 뽑기 위한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력강화위)가 27일 세 번째 회의를 위해 다시 모인다.

축구협회는 "제3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3차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미디어 브리핑이 없었던 지난 2차 회의와 달리 당일 발표가 가능할 경우 브리핑까지 진행된다.

지난 16일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을 경질한 축구협회는 새 감독을 뽑기 위한 전력강화위를 재편하면서 20일 마이클 필러(독일) 위원장의 후임으로 정해성 축구협회 대회위원장

을 선임했다. 또 새로운 전력강화위원으로 고정운 김포FC 감독, 박성배 송실대 감독, 박주호 해설위원, 송명원 전 광주FC 수석코치, 윤덕여 세종스포츠포토 감독, 윤정환 강원FC 감독, 이미연 문경상부

감독, 이상기 QMIT 대표, 이영진 전 베트남 대표팀 코치, 전경준 프로축구 연맹 기술위원장을 선임했다.

21일 열린 첫 회의에서 전력강화위는 3월에 예정된 2026 북중미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 경기에 앞서 외국인인 아닌 국내 감독으로 정식 사령탑을 뽑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24일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방향이 바뀌었다.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면서 정식 감독을 뽑기엔 시간이 부족한 탓에, 임시 감독 체제로 3월 A매치를 소화한 이후 6월 A매치부터 제대로 팀을 이끌 수 있는 정식 감독을 선임할 예

정이다.

이에 27일 진행되는 3차 전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결과가 도출되면, 브리핑을 통해 임시 감독으로 선정된 인물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감독 후보로는 박항서 전 베트남 감독, 황선홍 올림픽 대표팀 감독 등이 거론되고 있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장수 장애인체육회, 정기이사회 개최

올 사업계획 논의 후 심의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난 23일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장수군장애인체육회 제7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3년 사업결과 및 결산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안건에 대해 논의 후 심의·의결했으며, 장애인체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발전적인 회의를 진행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올해에도 종목별 가맹단체 활성화를 통한 대회 출전 및 훈련으로 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사회에 참석한 최훈식 회장은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사회 임원들께 감사하고, 올해도 가맹단체들과 힘을 합쳐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 종목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2024년 파리패럴림픽 참가와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